

정치권 “사고 수습 총력 지원”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29일 발생한 무안국제 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한목소리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한 총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안공항 사고, 지금은 인명 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무안에 있는 전남도 당에 마련한 상황본부로 이동해 직접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챙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고 대책위원장 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고 상황본부와

사고 수습 지원단, 유족 지원단 등 3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황본부장은 행정부 장관 겸 국회 국토교통 위원장이, 사고수습 지원단장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족 지원단장은 서삼석 의원이 각각 맡는다.

다만 이 대표는 사고 수습을 고려해 무안공항 현장은 당장 방문하지 않고 추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0 일엔 전남도당 상황본부에서 현장 최고 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우원식 “최상목 권한대행 최선 다해달라” 당부
이재명, 무안행...민주당 대책위원회 구성 가동
한동훈 “국민과 기도” 이준석 “정쟁 중단” 촉구

앞서 이 대표는 사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

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장비와 인력을 즉시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관계 부처와 당국은 절차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당도 정부와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 구조에 최우선으로 임해야 한다”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탑승객 확인을 통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망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3일 만이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밝힌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춘생 수석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무안사고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구조·수색과 수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역시 홍성규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관계 당국에 부탁드린다”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실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도 안전에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수습대책본부 회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사고 중앙수습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수 기자

기지개 쳐던 무안공항 개항 17년만에 최악 사고

이달 초 첫 데일리 정기 국제선 취항...당분간 정상 운영 불가능

개항 17년을 맞은 무안국제공항이 올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데일리 정기 국제노선을 도입하며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최악의 사고로 당분간 위기 상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비 3천57억원을 투입해 250만7천600㎡ 부지에 조성된 무안공항은 2007년 11월8일 개항했다. 연간 14만회 이·착륙이 가능한 2천8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항공기 9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계류장 9면과, 차량 2천3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연간 50만명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 등이 주요 시설이다.

개항 이후 중국 상하이 등에 주 9편을 운항하면서 환황해권 거점 공항으로 도약을 꾀했지만 운항편과 이용객이 적어 ‘무난한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지나해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국제선 정기 노선이 재취항해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5개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데일리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며 서남권 관문 공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실제 이날 사고가난 태국 방콕 노선을 비롯해 일본 나가사키·도쿄·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9개국 18개 국제선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데일리 정기노선 운영을 시작으로 이용객 증가를 통한 공항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대형 참사로 당분간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항 공사 등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무안공항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취재반=양시원 기자

광주·전남 학생 7명 탑승 확인...학생 추정 9명도 파악중

전남 지자체 전현직 행정공무원 13명·교육공무원 5명 탑승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 다수가 광주·전남 지역민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학생 7명의 탑승이 확인됐다. 생년월일 상 학생 연령대로 추정되는 9명에 대해서도 지역 연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등 4명의 학생이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 학생 3명의 탑승도 파악됐으며 탑승자 중 생

년월일 상 9명의 학생이 추가로 확인돼 지역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시교육청은 피해자 파악을 위해 무안 공항 등에 교육청 직원을 파견했으며, 학부모 사망 시 학생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방학 중 긴급 안전 교육 실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정 재난안전상황실과 연락

해 신속한 현황 파악 및 상황관리전담반 즉시 운영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남도청 상황실과 사고 현장 유가족 대기소에 직원을 파견했으며, 목포한국병원과 목포중앙병원에도 직원을 보내 학생 및 교직원 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사고 여객기 탑승자 명단에 도와 시·군, 출연기관 등 전·현직 공무원 13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출연기관 소속 남성 공무원 2명은 태국 여행길에 올랐다 변을 당했

다. 화순군에서는 현직 공무원 3명, 퇴직 공무원 5명이 동반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여객기에 탑승했다. 자매 사 이인 목포시 공무원 2명과 담양군 여성 공무원 1명도 탑승 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객기에는 전남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사무원 5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사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 상황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습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별취재반=김재정·김다이 기자

복지부, 장례지도사 22명·운구차 10여대 파견

보건복지부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 장례지도사 22명과 운구차 10여대를 파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희생자 유족을 도와 장

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신 수습용 백 200개도 마련해 현장에 지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12분 사고 상황을 접수한 후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의료 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총 4단계인 재난 의료 대응 단계에서 3단계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의료 대응 개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발령된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사고 현장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권역 재난의료지원팀 3개 팀이 출동해 부상자 진료 등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했다. /연합뉴스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 1명
전기자전거 :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